

돼지콜레라 항체가 100% 양성률을 실현한 여주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여주 양돈공동방역사업단(단장 : 윤상익, 이하 여주공방단)은 지난 97년 10월 처음 방역단으로 선정되어 여주 지역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창기 선정되었을 당시에는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방단의 운영 요령, 공방단 운영비의 확보, 양돈농가들에 대한 공방단 사업 홍보·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상익 여주공방단장은 이에 주저하지 않고, 공방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한편, 여주 지역 양돈농가들이 공방단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 현재는 여주 지역 전 양돈농가가 공방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여주 지역 모든 양돈농가가 지난 99년 7월 20일 기준 항체양성률 100%를 나타냈다고 한다.

여주공방단은 처음 방역단으로 선정된 이후 관급백신의 신속한 농가보급, 양돈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방역활동 등 지속적

◀여주 양돈공동방역사업단(단장 : 윤상익) 사무소 전경



인 활동을 펼친 결과, 전체 12만두, 135농가들이 100% 항체양성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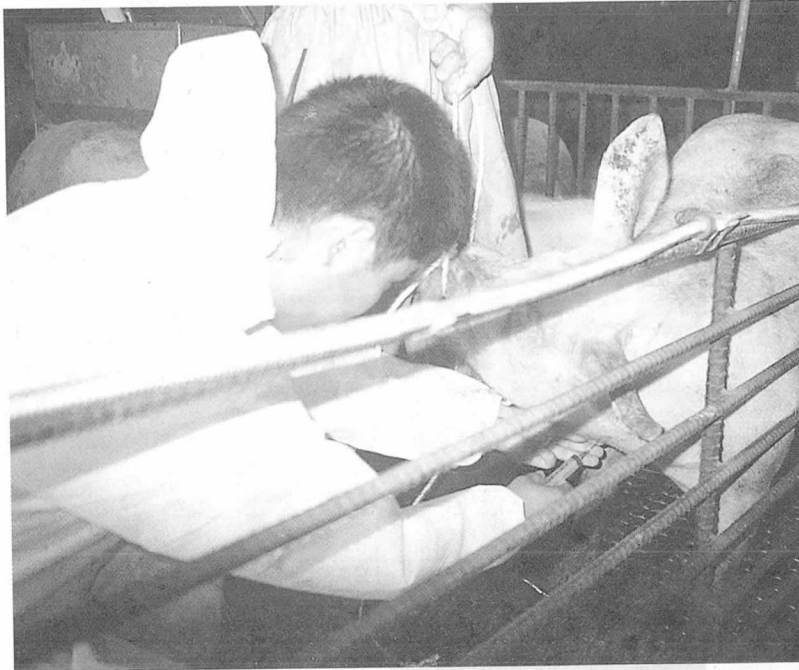
관내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 100% 달성

여주공방단은 부지부장(수의사), 총무 등이 포함된 지부 운영위원 10명이 방역요원으로 전원 활동하고 있으며, 4인 기준 1개팀으로 2개의 방역팀을 구성하여 각 조별로 활동하고 있다. 각 팀은 1명씩의 수의사를 중심으로 지부 운영위원 각 1명, 여주군청 축산계 직원 각 1명, 축협 직원 각 1명 등이 참여하여 각 팀별로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항체가 검사를 위한 돼지 채혈,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직접시술 등을 해주고 있다.

특히 99년도에 들어와서는 공수의 2명을 공방단 사업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농장 혈청검사, 소규모 농가 돼지콜레라 접종 시술 등을 하여 공방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해가 되었다고 한다.

여주공방단은 올해에 들어와 전반기는 각 면 단위로 농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99년 6월 2일 1차로 혈청검사를 시작하였는데, 전체 135농가중 13개 농가의 항체가 음성으로 판명되어 이들 13개 농가를 특별 교육하고, 그로부터 40여일 후인 7월 20일 돼지콜레라 항체가 음성 농가들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의 농가가 항체양성률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여주공방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차 확인 차원에서 10월부터 여주 지



역 135농가에 대한 2차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가스총 이용해 멧돼지 등도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실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은 지난 7월 2일 1차로 100~200두 미만의 농가에 대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을 하였으며,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하여 7월 20일 혈청검사를 재실시하여, 97%의 양성률을 형성하였다.

또한 지난 8월 5일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하여 2차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시술을 직접 해주었으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돼지콜레라 관련 지속적 지도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윤상익 여주공방단장은 정부 방침이 100두 미만 양돈농가들에 대한 직접 시술 지원을 할 것을 시달하고 있지만, 실제 고통

▲여주공방단 공수의인 최인규 수의사가 여주 군내 한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채혈하고 있다. 여주공방단은 4인 기준(공수의, 축협 직원, 군 축산계 직원, 방역요원) 2개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표〉 여주공방단의 '99년도 돼지콜레라 박멸 추진계획

년 월	계획 및 추진실적	혈조기관
1월~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여부 확인 및 설문조사 실시	여주군 공익근무요원
3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 실시	여주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4월~5월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공급(수량 : 68,880두분)	여주군
6월	●혈청검사 실시 ●항체양성률 80% 미만농가 재교육 실시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쿠폰제 실시	여주군, 축협, 공수의
7월	●소규모 양돈농가 1차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 실시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 2차 혈청검사 실시	여주군, 축협, 공수의
8월	●소규모 양돈농가 2차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 실시 ●돼지콜레라 관련 지속적 지도 및 홍보	여주군, 공수의
10월	●2차 혈청검사 실시 계획 ●2차 콜레라 근절을 위한 읍, 면 순회교육 실시 계획	여주군
11월	●양돈농가 질병차단 방역 소독약품 공급 계획	여주군
12월	●점검 및 평가 실시	

인 농가의 경우 직접 시술이 어려운 점도 감안 200두 미만 규모의 농가도 백신접종 시술을 직접 해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주 지역 내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멧돼지, 흑돼지 사육농가 등도 소규모 농가에 포함시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 100%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멧돼지나 흑돼지의 경우 최소 몇 두뿐만 아니라 2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도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리 있었던 이들 농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해주어 이들 농가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누락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주 공방단은 멧돼지와 흑돼지에 한해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 가스총(부로우건) 2대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만 아니라 여주 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방단 가입농가수가 50여 농가에 머물러 있어 이들 농가들이 처음 가입당시 부담했던 가입비로는 공방단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 여주 지역내 돼지콜레라 백신을 지원받는 모든 농가에 대하여 수령해 가는 백신분량에 따라 백신시세의 20%를 방역회비로 부담하게끔 하여 공방단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방역회비는 농가들이 백신을 수령해 갈 때 일정액을 각자의 농장 규모에 따라 부담하게 됨으로 농가들도 방역회비 부담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고

지역 군 당 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

여주공방단도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방단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한다. 특히 공방단 사업은 지부 회원뿐

윤상익

장은 “이 사업을 공방단장이 원하는 가는가가 공방단다”면서 “우리 여주 밀한 협조를 갖고, 공방단 사업이 있었다”고

한다.

여주공방단은 사업 초기 공방단 사무실의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하며 돼지콜레라 백신을 직접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돼지콜레라 백신 쿠폰제를 실시하여 농가에서 필요시 공방단 사무실에서 쿠폰을 수령 받은 다음 동물약품병원에서 직접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돼지콜레라 백신 지원금이 여주군에서 직접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약품회사에 입찰을 시켜서 입찰 받은 동물약품병원에 돼지콜레라 백신을 두고 농가가 직접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돼지콜레라 백신 이외의 오제스키, TGE 백신 등은 여주공방단 내의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금된 방역회비를 이용해 각종 교육과 백신접종 시술, 홍보활동 등의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며, 2명의 공수의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1명의 수의사에게 공방단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양돈전문 공수의

로 새로 위촉하고, 공방단 업무

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시술비 및 공수의 수

당과 함께 돼지콜

레라비대본부에서

지원되는 자금

도 일정부분 공

수의에게 할애

하여 공방단 사

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하였다.

윤상의 여주공방단장은



“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방단장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는가가 공방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우리 여주 지역의 경우 군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협의를 잘 해나감으로 공방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여주공방단 윤상의 단장, 윤 단장은 공방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협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군 당국, 지역 축협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돼지콜레라의 박멸은 우리 양돈업계의 가장 큰 해결해야할 과제다. 시·군 방역단이 여주를 포함하여 전국 92개 시·군에서 결성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2000년 8월 1일까지 100%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여주 지역과 같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듯 싶다. 아무튼 돼지콜레라 박멸이라는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 양돈산업이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취재 : 이병석 대리〉**양돈**

여주공방단
추진하는데 있어서
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
지역의 경우 군 당국과 긴
협의를 잘 해나감으로
정상궤도에 오를 수
강조한다.